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예수님 제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요한복음14장6-14절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14:6-14)

-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
- 이 세상에서 주 같은 분이 없다.
-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일하게 사람임을 초월하신 분!
-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아무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크셨다.

-사람들은 나는 왕이다! 나는 가수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제일 잘났다! 라는 자람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심을 갖기를 바랐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들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닦아 놓은 길로 가면 아버지께로 간다. 다른 길은 없다. 어느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말한자 없다. 짐작한 사람은 있어도 여기라고, 바로 이길이라고,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한 자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 천국에 가는 길이다.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가르킨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하셨다. 왜냐면 똑같은 말을 마귀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가 핵심이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 영생이시다. 왜냐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 영생이 최고의 가치다. 영생이 없으면 아무리 큰 가치도 무가치한 것이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가장 큰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다.

-깨달음이 더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빌립의 요구는 엉뚱하였지만, 예수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

-그것은 네가 예수님 자신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흔히들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주어졌지만, 사

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엉뚱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경우가 있다.

-빌립이 바로 그렇다. 그가 지금 보기를 간절히 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나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친밀하기 원해야 한다.

-차라리 베드로처럼 나도 물 위를 걷도록 해 달라는 간청이 더욱 좋다. 도전적인 요청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왜 빌립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혹 엉뚱한 요구를 할 경우가 있고, 그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다.

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0절은 아주 신비스럽고 핵심적인 구절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과 동일하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둘째로 경건생활이 습관처럼 되는 것이다.

-셋째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목상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전하는 생활이 된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다. 그러면 스스로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앞으로 더욱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빌립처럼 엉뚱한 것을 구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없으시다. 우리가 구해야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구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그것은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것이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되었든지 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 그 구하는 것을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부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